

Les objets
et accessoires
de bureau

DIPTYQUE
PARIS



Diptyque가 아티스트 스튜디오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안된 오브제와 액세서리 컬렉션으로 서재를 새롭게 장식합니다

은밀한 알코브거나 혹은 사람들로 북적이거나, 서재는 끊임없는 진화의 장소입니다. 2024년도 새학기를 맞이하여 Diptyque는 이 서재를 미학적으로 장식하고, 세 명의 브랜드 공동 창립자들의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테이셔너리의 기본 제품들과 그래픽 액세서리 및 도자기 오브제 등, 서재에 필요한 액세서리와 일상용품들을 모아 최초로 선보이는 본 컬렉션은 데생이 갖는 연상적 힘을 세련되게 보여 줍니다.

창작의 세계

Diptyque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브랜드의 창작과 영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브랜드 창립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아트 스튜디오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여, Diptyque의 상징적 데생들로 장식된 데커레이션 오브제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첫 번째로 소개되는 본 컬렉션을 표현적 데생으로 장식하고 있는 컨템퍼러리 아티스트는 바로 프랑스의 삽화가 사피아 우아레스입니다. Diptyque 브랜드와 오래 전부터 협업해 온 사피아 우아레스는 Diptyque의 후각적 세계를 표현하는 독보적인 데생과 패턴들로 컬렉션의 오브제들을 장식합니다.

라인과 소재의 환상적 조합

창립 이래로 브랜드의 상징이 된 오벌 형상이, 마치 아티스트가 방금 전 흰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 듯, 종이 위에 연필로 가볍게 그려 집니다.

순백의 도자기나 종이 위에는 신화 속의 우화들이 펼쳐 집니다. 신들의 파란만장한 운명이나 사랑 이야기들이 바즈나 노트북 커버를 섬세하게 장식하며, 연필로 그린 선은, 그 어떠한 소재 위에 그려지든 간에, 마법적인 천국의 정원처럼 하늘과 물, 울창한 꽃 사이의 몽환적 세계를 그려냅니다.

스테이셔널리의 기본 제품 및 데커레이션 오브제

새학기마다 소개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Diptyque가 최초로 오피스 액세서리 및 스테이셔널리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각각의 오브제는 현재의 이 순간을 확실히 기록하거나 또는 상상력을 펼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브랜드 창립자들의 여행일지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안된 3종 노트북 세트 및 리필 가능한 노트북들은 일상적인 노트와 생각들을 적어 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메모 블록과 편지지 세트 및 연필꽂이는 각기 상징적 오벌이나 Diptyque 최초의 오 드 뚜왈렛 « L'Eau »의 오리지널 삽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깃든 최상의 선물입니다.

Diptyque 브랜드의 독보적인 오브제로서, 브랜드를 상징하는 동물인 우아한 공작새가 장식된 실버 메탈 페이퍼웨이트와 오크트리 원목에 조각된 북엔드는 프린팅 예술과 레터프레스 프린팅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 두 오브제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된 소중한 노하우들로 제작된 탁월한 제품입니다.





세련미를 보여 주는 도자기

책상이나 콘솔테이블 또는 서가 위에서 순백의 빛을 발하는 도자기는 우아한 트레이나 머그 또는 2종 사이즈의 폴드 바즈로 선보입니다. 기능적이면서도 예술성 높은 이 오브제들은 도자기 장인들의 노하우로 제작되고, 사피아 우아레스의 매력적인 데생들로 장식되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제작된 도자기 트레이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동전이나 귀걸이, 퍼퓸드 슝...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 장식은 꽃과 조개 사이에서 빛나는 페이토 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듀오 세트를 이루는 두 개의 폴드 바즈는 마치 물거울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비추어 주는 영구한 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안된 이 바즈들은 이원성과 상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페우스의 정원을 보여 주는 트레이 장식은 모르페우스가 꿈을 관장하고 있는 몽환적 여행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을의 빛

여름철 쾌적한 실외에서 즐기던 밤들이 지나고 나면, 센티드 캔들 불빛 아래 실내에서 즐기는 가을밤들이 돌아옵니다. 턴드 우드로 제조된 캔들 홀더와 캔들 리드가 흑단같은 색상으로 키아로스쿠로 효과를 연출합니다. 이 두 오브제는 문화유산기업으로 인증된 어느 공방에서 프랑슈 콩테숲에서 자란 풀무레나무 에센스로 제작되었으며, 자연적 미가 깃든 액세서리로 캔들 불빛을 동반해 줍니다.

Diptyque는, 서재를 위한 스테이셔너리의 기본 제품들과 도자기 장식 오브제로 구성된, Diptyque 최초의 컬렉션을 통해 풍성하고 즐거운 새학기를 약속해 줍니다. 세 명의 브랜드 창립자들의 상상력을 반영하고 있는 본 컬렉션은 심미가들의 일상에 예술적, 기능적 터치를 더해 줍니다.



3종 노트북 세트 - 노트 스몰 -
노트북 리필 - 노트 라지
노트북 리필 - 다섯가지 패턴
노트패드 - 두가지 패턴
연필 - 아티스트 스튜디오
연필꽂이 - 두가지 패턴
오벌 스티커
실버 메탈 페이퍼웨이트 - 피콕 패턴 - 메종 디티크 단독
유리 페이퍼웨이트 - 아티스트 스튜디오
편지지 세트 - 피콕 패턴
트레이 - 스몰, 미디엄, 라지 사이즈
머그 - 티아수스의 정원
디티크 포토 프레임 - 바질
복앤드 - 프린팅 타입 - 메종 디티크 단독
블랙 리드 - 클래식, 미디움, 라지 캔들용
미디움 캔들용 블랙 캔들 홀더 - 두가지 모델

언론 문의

Han PR

jylee@hanpr.net - T. 02.6494.2843

chmy@hanpr.net - T. 02.6494.2849

@diptyque #diptyque #diptyqueparis



diptyqueparis.com

Diptyque — 5, avenue de l'Opéra Paris 1er — France

DIPTYQUE

PARIS